내가 나를 찾는 순간 나는 죽는다

(역대하 35:1~27)

1.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2.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3.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나를 찾는 순간 나는 죽는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가 나를 찾는 순간 나는 죽는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12가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으로 살라.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궁금해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라.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나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때부터 관심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요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보면 젊은이들이 하나 같이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가히 셀카봉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도 이러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잘 알기 때문에 해변에 액자 모양의 틀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 뒤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이 그림처럼 나옵니다. 어떤 설치물 중에는 큰 반지와 작은 반지를 형상화한 벤치가 있어서 남녀가 앉으면 연인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이처럼 셀카를 통해서 자기 모습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자기 자신보다 더 우선적이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성이 있다면, 그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와 결혼한 자신을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엄마 아빠인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도 돈을 평평 쓰면서 자유롭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은 과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더 이상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을 찾고 있고, 그 찾은 자신으로 사는 것을 인생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신을 찾아 꽃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장관, 판검사, 의사, 사업가, 목사, 부모 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삶이란 나를 찾아서 그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을 찾을 때 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 자신의 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를 찾았다는 것이 확실하고 진실하다면 나는 더 이상 나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목적이 나 자신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찾고 난 후에 허락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있음을 출발점으로 하여 나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엄청난 오해입니다. 인생이 비극적이고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최고의 명제로 내걸기까지는 많은 지식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나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있다고 생각하여 삶을 출발하지만, 실은 아직 나를 찾지 못한 채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앞서 보았듯이 신앙개혁을 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자니 내 마음을 차지하려는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죽어야 함을 깨닫고, 그러한 가치로 인해 추구하게 되는 우상숭배를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오늘은 유월절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크게 지냈는데, 요시야 왕 또한 유다의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더욱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므낫세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우상의 제단을 성전에 세우는 중에 법궤가 이리저리로 옮겨지고 치워졌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중에 법궤를 성

전으로 모시고 다시는 성전 밖으로 옮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와 같은 사건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다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민족의 각자가 나 자신이 누군가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모세 이후로 요시야 왕까지 무려 9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이즈음에, 요시야는 유월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확립하려고 했느냐면 법궤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앞서 반복하여 우리 마음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 말씀의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모양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고 이 공백은 채워져야만 되기에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지성소에 담는 이름으로 마음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라는 이름이 담기면 실제로 돈을 벌어서 채우려고 합니다. 자식이 담기면 자식의 형통을 통해서 그 공백을 채우고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마음의 지성소에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돈이나 건강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라는 직위일수도 있으며 아니면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뿐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내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기르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데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모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공백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진정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보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장자가 죽었던 날입니다. 장자는 곧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돈이면 돈이 장자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지금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면 이것이 장자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 있는 마음은 죄악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을 때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을 보면 요시야가 죽게 되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신흥 왕국으로 부상하여 세력을 펼쳐나가게 되고 BC.610년에 앗수르는 바벨론에 패하고 앗수르의 잔류군이 갈그미스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 애굽의 바로느고는 바벨론의 남하를 저지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진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남 왕국 유다를 통과해야만 했는데 요시야가 가로막고 바로느고에게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라고 하는데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서 애굽의 느고가 유다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왜 요시야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요시야에게 느고와 싸우지 말라고 한 마디만 하셨다면 싸울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시야는 느고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앞서 나왔던 여 선지자인 훌다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자신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들 또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낼 만큼 선민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아닌 이방 왕인 바로느고에게만 전쟁에 대해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 요시야로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바벨론의 남하세력을 저지하려고 하는 바로느고와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앗수르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이번에는 애굽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한다니 왕으로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결국 요시야는 이들과 싸우다 죽습니다.

사실 남 왕국 유다의 멸망은 할아버지 세대에 이방인들보다도 더 지독한 우상숭배로 인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신앙개혁과 유월절 사건은 이러한 멸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이제 23년 뒤에 남 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칠십년간의 포로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 신앙으로 선민 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대표적인 인물인 다니엘 또한 요시야 때에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확고한 신앙을 간직한 채로 포로가 되어서 칠십년 동안을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최고조로 성대하게 지켰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레미야 애가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슬퍼

하자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 울라는 말을 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슬퍼할 이유가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가 유월절과 요시야의 죽음을 연결시키며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십자가 복음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찾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의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었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의 나의 생애는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어도 내 생애는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죽어서 생애가 끝났지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게 되면 살아서도 더 이상 내 생애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하고 엄마 아빠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쓰고 불우한 이웃들 도우라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디처럼 살라는 것도 아니고 루즈벨트처럼 공황을 극복시킨 경제대통령으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웅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은 육체로 접하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육체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모셔 들임으로서 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담는 첫 번째 대상은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기쁨과 만족의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삶은 더 이상 진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로 돈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을 때에 이 세상을 열심히 살게 되는 이유는 돈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기쁘고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의 성공과 형통이 마음의 지성소에 첫 번째 관심사가 되면 마찬가지로 열심히 땅을 휘저으며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는 것이 이름인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이 땅에 있다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이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면 하늘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하늘에서 내 기쁨과 만족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고 바로 그게 나입니다.
그럴 때에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나의 활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만족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유월절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자 요시야의 죽음을 갖다 붙임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받아들일 때에 나 자신을 찾게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며 하늘

로 인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목표이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분들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대통령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었으니 내 생애는 요시야가 죽은 것처럼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도 어리고 벌여놓은 사업이 있을지라도 나머지 모든 일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몸을 관리하고 내가 자식을 키우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 나를 찾았으면 이 세상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사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나 자신을 찾게 해주심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시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